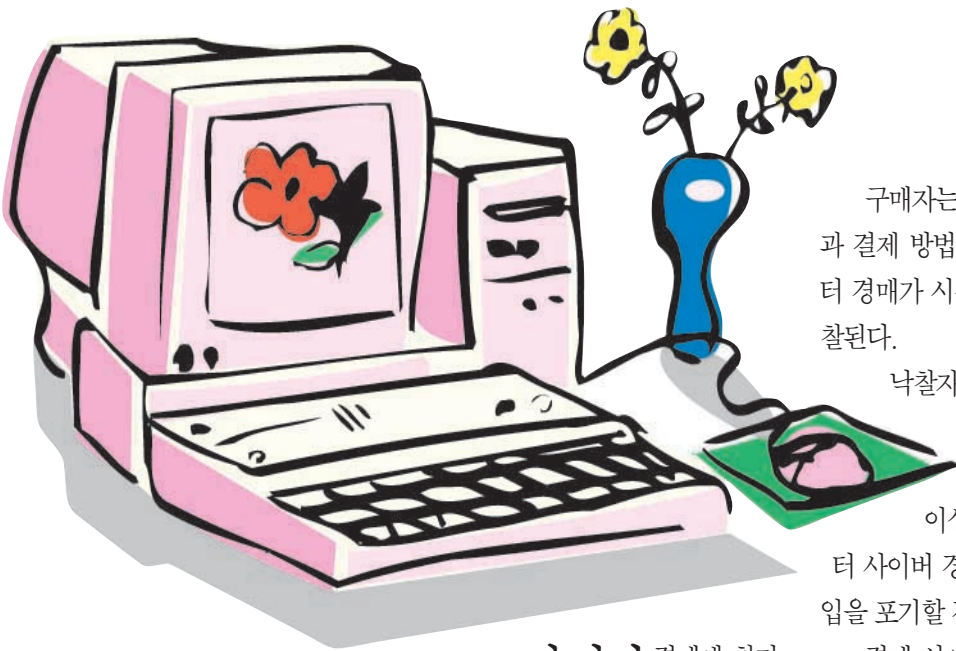




# 인터넷 사이버 경매, 실속 쇼핑 가이드

사이버 경매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경매 업체는 대략 70여 곳 정도다. 경매 물건은 가전제품·생활용품·중고 자동차·예술품·골동품·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값비싼 상품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 사이트로 몰린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 실속 있게 상품을 장만하는 요령과 유의 사항을 알아본다.

■글/김택상(자유기고가)



구매자는 이 정보를 토대로 입찰서에 매입 가격과 결제 방법을 적어 경매에 참가하면 된다. 이 때부터 경매가 시작되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에게는 경매 마감 직후 전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구매 방법을 안내해 준다. 낙찰자가 아무 이유 없이 2회 이상 경매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사이버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낙찰자가 상품 구입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에게 구매 권한이 넘어간다.

경매 사이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매매 안전 장치를 가동, 먼저 구매자가 경매 사이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다. 경매 사이트는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라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낸다.

운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매 사이트는 보관 중인 상품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 사이버 경매는 종료된다.

## 사이버

경매에 참가하려면 우선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대부분 무료지만 자동차처럼 고가품을 경매하는 사이트는 수수료를 내는 곳도 있다. 회원에 가입할 때에는 전자 우편 주소·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제 때 연락 받는다.

경매 상품은 판매자가 상품 설명과 사진, 경매 시작 가격, 경매 마감 일자 등을 적어 등록하거나 경매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된다.

## 경매 사이트 체크 포인트

경매 사이트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약관을 상세히 읽어봐야 한다. 경매 진행 요령, 입찰·낙찰 관련 제반 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경매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게시판에 올린 이야기를 미리 살펴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제품이 거래되는지, 가입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경매 진행 결과가 전자 우편으로 실시간 통보되는지, 입찰자 리스트나 경매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해 놓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유령 사이트가 아닌가?

경매 사이트의 주소·전화 번호·회사 위치도·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문제 발생시 해결 절차 등이 제대로 밝혀져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 연락처가 없는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 ② 입찰 상한가 제한이 있는가?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다.

인기 상품은 경매 가격이 오르게 된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되고서는 거래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입찰자들이 피해를 본다.

### ③ 업데이트는 자주 하는가?

새로운 내용이 자주 업데이트 되지 않는 사이트는 피한다. 신용 불량자의 경매 참여 제한, 음란물 판매 금지, 상호 비방·욕설 금지, 맹목적인 돈벌기 사이트 홍보 글 삭제 등 건전하게 관리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

### ④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사이트인가?

차체 서버를 넉넉하게 갖추고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좋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지불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상품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제대로 입금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 ⑤ 실수를 인정하는 사이트인가?

이 모씨는 최근 한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제품 가격이 0원, 할인을 100%로 제시된 손목 시계를 보고 주문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주문 당시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화면까지 떴지만 일주일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게시판에 올린 문의 메시지는 지워져 버렸다.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은 '이씨가 웹마스터의 실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오히려 몰아붙였다.

### ⑥ 대금 처리는 분명한가?

최근 최 모씨는 자신의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낙찰자가 경매 사이트로 입금했음에도 경매 사이트에서는 본인에게 송금해 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2주일 동안 네 번이나 전화했지만 전혀 소용없었다고 한다.

또다른 고객은 사이버 경매로 내놓은 보안기 판매 대금 8천5백원을 이런 이유로 수령하지 못해 전자 우편으로 경매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어떠한 답변이나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 ⑦ 적정 가격에 낙찰되는가?

경매에 여러 사람이 입찰하면 그만큼 높은 가격에, 한 사람의 입찰자도 없다면 싸게

얻는 행운이 돌아온다. 제품 숫자가 너무 적고 회원수가 많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입찰 가격이 초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낮다. 회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회원 관리 업무가 많아 일 처리가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 알뜰 경매 요령

### ① 시중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둬야

정확한 시중 가격을 알아두어야 인터넷에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한지 알 수 있다. 백화점·전문매장을 찾아 제품별·품목별 외관을 파악하고, 정상 가격·할인 판매 가격·중고 가격을 알아둔다.

이렇게 비교한 다음, 구입하려는 상품명과 가격을 메모해서 모니터에 붙여놓는다. 어느 회사의 어떤 모델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구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둔다.

가격과 함께 제품 정보가 충실한지도 확인한다. 사진이나 상세한 상품 소개 글이 있어야 낙찰 받은 뒤에 확인하기가 수월하다.

### ② 최저 가격이 낮은 상품에 입찰

최저 가격을 시중 가격과 비슷하게 매긴 한 쇼핑몰의 경매 코너에는 사용자들의 향기가 빗발쳐 야예 경매 코너를 없앴다. 50만원대의 모니터가 60만원대에 나오다가 하면 6만원 짜리 시디롬이 9만원에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중고 물건을 내놓는 사람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1백50만원에 사서 1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펜티엄 200MHz 중고 PC를 1백만원은 받고 싶어한다. 펜티엄 400MHz 정도의 PC 본체는 현재 60만~8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도 말이다.

### 3. 벼락 경매 · 홍보 이벤트 활용

최근 인터넷 쇼핑몰마다 경매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웹사이트에서도 벼락 경매 · 깜짝 세일 등을 실시한다. 쇼핑몰마다 특성이 다르고 단골에게는 혜택을 준다. 이러한 정보는 검색 엔진의 쇼핑 전문 서비스(야후 코리아 [shopguide.yahoo.co.kr](http://shopguide.yahoo.co.kr)/네이버 [shop.naver.com](http://shop.naver.com)/라이코스 [shop.lycos.co.kr](http://shop.lycos.co.kr))나 쇼핑물 비교 분석 사이트(쓱마당 [www.shop-madang.com](http://www.shop-madang.com)/웹나라 [www.webnara.com](http://www.webnara.com))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사이버 경매에 신상품을 내놓는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내놓지

경매 사이트의 주소와 전화 번호, 소비자 게시판, 경매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해결 절차 등이 제대로 밝혀져 있는지 확인한다. 연락처가 없는 사이트는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못한다. 그러다 보니 경매 사이트의 신상품은 다양하지 못하다. 기업체의 홍보용 신상품은



한시적으로 한정 수량만 내놓으므로 평상시에 잘 살펴보면 싸게 입찰 받을 수 있다.

### 4. 마감 직전 낙찰가에 신경써야

경매 마감 직전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입찰 가격이 1천원 내지 2천원 단위로 올라가는 경매에서는 마감 직전의 입찰 가격을 많이 써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감 직전의 이 같은 과감한 배팅으로 5만원에 가까운 주방용구를 절반 이하 가격에 구입한 소비자가 있다.

경매 가격만 있고 마감 시간이 없는 상품은 값이 오르도록 기다렸다가 적당한 마진 가격으로 올라야 마감 압박 표시를 해놓는다. 일정 수준의 이익을 반드시 남기겠다는 의도다.

### 5. 전문 경매 사이트 이용

항공권은 투어플라자([www.tourplaza.com](http://www.tourplaza.com)), 노트북과 PC서버는 한국IBM([www.ibm.com/kr](http://www.ibm.com/kr)), 중고 자동차는 오토마트([www.automart.co.kr](http://www.automart.co.kr)) 등의 전문 사이트를 이용한다.

20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한 이지클럽([www.easyclub.co.kr](http://www.easyclub.co.kr)), 인터넷 쇼핑몰과 겸업으로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솔CS클럽([www.csclub.com](http://www.csclub.com)) 등 기타 쇼핑몰의 경매 코너도 특성별로 파악해 둔다.

국내 최초의 경매 사이트인 인터넷경매([www.auction.co.kr](http://www.auction.co.kr))에는 3천5백여종의 경매 상품이 있고, 회원은 30만명에 이른다. ☎

### 알아둡시다

## 인터넷 경매시 주의 사항

####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한다

경매에 낙찰된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두도록 한다. 규모가 큰 사이트에서는 배송 현황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고, 이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주소가 바뀌거나 이동해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전화해서 인수 장소를 협의하도록 한다.

####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반품한다

물건을 인수할 때에는 색상 · 크기 · 디자인 · 기능 · 흠집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컴퓨터는 인수 즉시 설치, 시동까지 해보아야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설명과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요구한다.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일 이내에 돌려보내야 반품 처리된다. 특히 경매로 당첨된 만큼 이유

없는 반품이나 환불은 되지 않는다.

#### 승부에 집착하면 서로가 손해다

경매에 몰입하다 보면 반드시 낙찰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승부에 집착하게 된다. 얼마 전 한 쇼핑몰에서는 50만원짜리 서울 · 동경간 항공권이 3백만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낙찰은 됐지만 거래 될 리가 없다.

